발행인 박 술 음
편집인 동 춘
주 간 신 재 홍
인쇄인 대한공론사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학 보 사
TEL ⑨983 (직통)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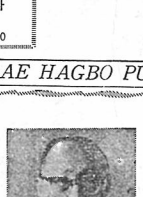
(1958. 3. 27제 3종우편물인가)
(허가번호 제라85호)

1968년 4월 20일 발행
제 126 호

Sister Paper in Foreign Languages
The Argus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개교 14주년 학장기념사


〈박 술음 학장〉

오늘의 자란모습 대견하지만
미래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4월20일이면 한국외국어대학은 개교 14주년을맞이한다. 현 이사장 김준래 선생께서 학교법인 동원재단 창립과, 외국어대학 설치에 관한 인가를 받고부터 꼬박 벌써 14년간인 오늘에 우리 대학이 문을 열게된 것이다.

아무것도 없던 텅빈 공간에 그때 부터 배움의집이 솟고, 학생들의 뜰이 마련되어, 강단에 교수들이 서시고, 학생들이 모여 들었다. 그 뒤로 이 대학의 세월은 보람 있게 흘러, 이만큼 자랐하고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니, 그때 개건하기만한 것이 오늘 우리의 꿈들의 노리이다. 건지이 튼튼해로, 마치 일학 의심하게 지키 보고 약진에로 서부르는 힘 시 있다. 약속해로 힘라면 모

이 튀어나는 그 씨에서 싹이 트고, 그것이 자라면 꽃이 피며, 결국엔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주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것이 어떠한 모양과 맛을 가지게 될지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아름다운 화초로 되기까지 가꾸자면 그 수고가 이만저만하지 않다.

겨당히 물과 거름이 풍부하고 적당한 사람이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한 때마다 방심하여서는아니되겠다.

한편 다른 땅에 씨를 심어 그것이 아름다운 화초로 되기까지 가꾸자면 그 수고가 이만저만하지않다.

겨당히 물과 거름이 풍부하고 적당한 사람이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한 때마다 방심하여서는아니되겠다.

대학의 제일 목적은 학문이다. 학문의 넘새가 장하게 증기는 곳이 대학이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기풍과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먼저 아쉽다. 학방에 가서 무엇한 증겸을 할 수 없듯이 대학에서 본래의 목적이외의 딴 것을 바라서는 아니된다. 학문을 진짜로 하면 인격도따라서 다듬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가 시범적인가에 항상 유의하여 학생들에 모범을 좋은 것을 닮게 하여야겠다.

5년에서 간단한 파티와 함께 일어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지후 교정에서 시범경기를 보였다.

본대학과 「델리」대학은 1963년 4월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이문벌 누빈 새봄의 향연

◇……본대음이 향그러운 4월 20일, 「진리·정화·창조」를 다짐해 온 본대학이 개교 14주년을 맞……◇
◇……이 하였다. 「국가와 사회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 문화교류및……◇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교육이념아래 14개 성상을 지나온동안, 본 대학을 특수사명을 지닌……◇
◇……국내 유일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여왔다. 20일 오후 3시부터 있는 자매학회……◇
◇……「보람」 친선방문주연회를시초로하여숙제의 「무우드」는한층 더고조되어가고있다. ……◇

개교 14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

이번 14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4월 17일 오후 5시 회배「보람」「딥」의 준년으로 시작하여, 18~19일의 학술 강연회. 20일, 개교기념일의 「카니발」로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날 새벽은 올해 처음으로 서강대학 초청강기가 거행되었는데 이것은 「외서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어서 자 대학 「보람」친선방문 연주회, 강기대회, 「포크·댄스」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7시40분 박 학장이 점화한 「론·파이어」의 불길이 타오르는 가운데, 개교14주년을 뜻하는 14발의 폭죽소리가 울려퍼져 본 대의 상징인 「세줄기」와 「외서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 매우 고무적이었다.

<「외서」배구시합 광경>

오한진 교수화촉 드라마센터 예식장서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 본대학 독어과과장 오한진 교수의 결혼식이 박술음 학장의 주례로 「드라마센터」에서 서강대서 거행되었다.

신부는 이화여자대학 영문과 출신 한기자양이다.

4월 16일 : 학술강연 (1)
강사 : 강인덕, 김기석
: 마틴이라 문학의밤
4월19일 : 학술강연 (2)
강사 : 유경철, 조동범
: 유재원 음악회 공개방송.
4월 20일 : 「카니발」
장기대회, 「포크댄스」, 「게임」
서강대학초청경기.
4월 22일 : 여자 「소프트볼」 경기
4월 23일, 24 : 연극회주연
제목 : 사랑은 죽을과함께
4월 25일, 26일 : 영어방송극
제목 : 나리에서본 경치.

「델리」대학럭비팀내교 간담회와 시범경기도

지난 3월 26일 오후 일본「델리」대학「럭비」팀31명이 단장「카가미」씨의 인솔로 본 대학을 방문했다.

대학체육회 초청 친선경기차 방한한 이들은 이날 10

도서관장에 김석주교수
「학생지도 도서제」구상도

최경주교수의 서거로 그동안 공석중이던 본대학 도서관장에 지난 4월1일자로 김석주교수가 임명되었다.

신임 김석주도서관장은 「장소만을 빌려주는 도서관이아니라 학생들의 활동적인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는 6월부터 학생들로 하여금 수강과목의 참고도서를 의무적으로 읽게하도록서 명심공히 공부하는 대학이념수있는 「학생지도 도서계」를 실시하겠다」고 신임 김석주교수의 력력.

SCA임원개선
신임회원 모집도

본대「기독학생협회(SCA)」에서는 「제1분기 YMCA, YWCA 「회대합창단」과의 건립한 힘조 아래 새임원을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 새 임원에는 YMCA 회장에 윤상구(A3), YWCA회장에 송덕자(G3)양이 각각 선임 되었으며

건립「아리아」합창단」은 보 다 나은 발전을 위해 「회배 합창단」으로 개칭하여 현재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S.C.A에서 계획하고있 회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내용은 주기적인 성경 연구 국 학생회 참가, 여성, 교양강좌와 고아원과 양로원 방문 그리고 「회배 음악회」개최 등이다.

8개단체 신규등록

배구부를 비롯한 학생회 8개 산하단체가 지난 4월1일자로 신규록 승인되었다.

이번 신학기를 맞아 새학생단체를 모집하여 찾는배움 16개회 신기신청 단체중 배구부를 비롯한 8개의 단체만 승인된것이다.

한편 이번 인가가 취소된 단체는 「파리회」등 8개의기

외국어웅변대회 6월, SASA주최로

동남아 학술 연구회 (SASA)에서 오는 6월22일 오전 10시 제1회 전국 남녀 대학생 아지아웅 반공외국어 웅변대회를 제개 반공연맹 (WACL)의 후원으로 개최하는 (보건사회부 6종) 에서 개최한다.

무질서한행동 보인 대의원회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비난받아

1968학년도 제1차 경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본관 208호실에서 열렸다.

동 회에서는 대의원회 의장단을 선출하였는데 그 임원은 회장에 김수희(R4), 부회장에 이왕필(M3)이병식(E2)군이 각각 뽑힘 회있었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동 별무실현된 대의원회의 소집과 활동상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의원회의 일원과선이란 절차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듯하였다.

학생들은 「대학내에서 총학생회를 견제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대의원회가 그 존재조차 회심치 않고 있다」 「회의 진행능력은 가이 「모 기관」 맡힐만 하다고 하는 기자들.

○…학보사에 투고가 줄어 왔는데 사권인즉, 신축중인 학생회관안에 기숙사를 마련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역설.

글쎄요, 학생회관 공사가 언제 끝날지 까마득한 데 이니 기숙사 문제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되지 않을지.

○…본 대학 창설 14주년 기념행사로 학생회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회배를 보이고 있으다.

서강대학 초청경기라는 행사는 어떤지 를 평가는 것이라고. 양 대학 선무자들간에 말이 오가고 있는 모양인 「외·서전」이란 것이 어떤 형태로 열리게 되는 골라도, 이런 종류 행사는 상당한 준비와 경제인 뒷바침 그리고 교직인 성원이 있어야 실을 보게 될 터인데.

총 학생회는 부단 심인지 아직 세부계획도 인지 못한 석유실의 계획을 숙제 도출(?), 출석 행사를 만들어 버려, 나 에 「외·서전」이 절실을 게 되버라도 「김이 세게 버렸다」라는 비난을 듣지.

〈알 림〉

본보는 개교 14주년 맞아 126호부터 전면한 보도 실시.

이문춧점

회배「보람」발표회를 「스타트」로 본술장원.
• 「카니발」·여자 대학생 「소프트볼」·경기·
국회와 영어연극 등연등 다양한 행사는 개교기념 행사를 중심으로 장식한다. 자 회와 크럽은 전지한프정으로 참공회 「리시」를 출력고 있다.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그치지 않고 「졸산조」의 뇌리에 회배의 정신을 깊이 새겨줄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때 개교기념 행사는 그사명을 다된다 할수있다.

알 림

제7회 외대문학상 작품모집

1962년본 「외대문학상」이 계정되어 그동안 역량있는 문학도의 발굴과 창작의욕을 북돋아 온바 금년에도 제7회「외대문학상」원고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 모 요 령》

종 목 : 시·수필·창작소설
매 수 : 시 (3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창작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응모자격 : 본대학 재학생.
마감일 : 1968년 7월 31일
발 표 : 추후 발표함.
제출처 : 외대학보사 문학부.
심사위원 : 추후 발표함.
기 타 : 원고에 출시 겉봉에 「외대문학상 응모작품」이라고 붉은 글씨로 쓸것 단, 응모작품은 반환함을.

1968년 4월 20일
외 대 학 보 사

1년동안 방치된 학생회관
금년말에 완공예정

사무처는 1966년 6월에 착공된 학생회관 공사를 금년 말경 완공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1967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본 학생회관공사는 계획측의 경비 문제로 헤매하기, 예정보다 공사의 50%인 주체공사만 금년 전체 1년동안 방치돼 왔던 것이다.

신축중인 총 건평 2,100평의 학생회관이 완공되면, 식당과 학생휴게실, 음악감상실 및 각 자치활동 단체의 부실이 들어 가게 되리라 하는데 외서인의 열심이던 기숙사와 강당에 뒤에서는 아직 토탄 사무처는 김덕래 상주이사가 계획하는 동안 뜬 발전을 보인 학내「클럽스」비화자일을 더욱 촉진시켜, 「클럽스 주위의 담장공사를 끝마치면 도서관 뒷편에도 잔디를 심을 계획이라고 한다.

KUSA회원보강
금년계획도 마련

외대「유네스코」학생회(KUSA)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신입회원 50여명을 모집하였다.

신학년도를 맞아 동 협회에서는 공동 활동 목표를 계획했는데 중요 계획은 고전읽기, 타잔이 노래 부르기, 학생 연구발표회, 한글 바로 써기와 나무심기 등이다.

핸드볼팀 준우승

전국핸드볼 연맹전에서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핸드볼」연맹전이 서울운동장 체구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영어과교수 액운의 해(?)

○…올들어 본 대학 영어과는 굳자 그덕로 액운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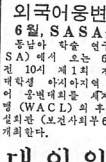
대학장을 지론 최경주 박사의 서거를 위시해서 박희영 교수 사모님, 김동선 교수의 모친, 김석주 교수의 장모님등이 잇달아 별세 한데다, 박규서 교수는 신병으로 자리에 눕게되어 한때 영어과에는 통장「콩」이 일었다. 그치밤 총아하는 류장이지만 영어과 학생들의 조장은 침통.

○…본대학 개교 14주년을 맞아, 본사에서 우리회 원장을 만들하자는 뜻에서 과당선을 부탁하여 4, 5년에 이르렀는데, 학보제작 도중 인쇄소로 학교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다는 것. 내용인즉 「외대학보에 실릴 기사를 . 최에서 비리 있았으니, 문제점 부분을 고쳐 따」는 것.

내용이 어떻게 새어 나간 것 것인지 궁금해 하며수소문해 본 결과 , 파담회 참석자중에 , 의 「조작회 결로한 도 다른 곤 미흡

민성홍강사 도일
일본문부성 초청으로

지난8일 본대학 일어과강사 민성홍씨가 일본문부성초청으로 도일했다.


(사진 홍강사)

본대학 일본어과 8회졸문으로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본어학 석사과정을 2년동안 연구한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빠진 맥주격된「외서전」

英語책의 Home Base 時事英語社가 勧해드리는 英語良書

現代英語삐미나 全六卷

값 3,500원 · 5仙月月賦 7

■ 살아있는 오늘의 高級英語를 分野別로 총망라!
■ 참신한 内容이 새 知識 새 眼目을 길러준다!
■ 친절한 解説이 活用力, 応用力을 크게 길러준다!

① 現代英語會話 — 값 600원
② 高級現代英作文 — 값 500원
③ 時事英語講座 — 값 700원
④ 實務英語解説 — 값 500원
⑤ 新聞英語研究 — 값 700원
⑥ 高級現代英文解釋 — 값 600원

配達注文은 (24)2974-5 !

* 알찬 大学生活을 위한 大学生 必讀의 叢書!
全國 50餘 著名教授 共同執筆 · 玄勝鍾 / 申一澈 教授 編輯

大学生과讀書

第 2 輯
4月末発賣
主要内容
■ 教養과 讀書
■ 古典의 世界
■ 讀書論의 樂宴
■ 讀書의 方法
■ 愛讀者와 藏書
■ 專攻을 위한 讀書
■ 生活人의 讀書

大学生과教養

第 1 輯
発賣中
主要内容
■ 大学이란 무엇인가
■ 思考·言語·記号
■ 韓國과 韓國人
■ 科学과 科学的 方法
■ 生活人의 教養
■ 오늘의 人生觀
■ 大学生의 学習方法
■ 講義는 어떻게 들을까
■ 試験答案/레포트·論文作成
■ 外國語学習方法

大学生과 教養部第二回必讀推薦図書

菊版361面 값700원

時事英語社
서울 中区 水下洞63
(教聯 共濟組合 別館)
503.505.601.602号室
☎ 0509·0510
(24)2972-5
私書函 光化門148 振替 서울2139

개교 기념

◇학 생◇

논 단

경영조직론

한국기업조직을 중심으로

◇…기업조직의 중요성은 단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
◇…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재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수세기 뒤떨어지…◇
◇…고 있던 우리가 그나마 현상태의 도약단계에 들어선 지금, 말하자면 미국의 경영학이 도…◇
◇…입된지 1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기업은 아직까지 조직면에서도 과학적인 경영방법이 널리…◇
◇…보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조직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은 경영층이다. 경영자의 사회…◇
◇…적 책임이 중시되고 경영층이 사회의 지도집단으로서 역할이 두드러진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업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흔쾌한 경영조직을 기대하는 것은 흡족한…◇
◇…지도성을 갖춘 경영자의 미래상을 위한 자기 개발이다. 아울러 경영조직은 기업자체뿐만아…◇
◇…니라 각 분야에서도 중한 것이다.

박 승 구

〈도이취어과 3년〉

〈서 론〉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화되면 경영활동량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는 전문화를 초래시킨다. 거대경제로부터 하나의 독립된 기업의 수단으로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개체 조직 통제라는 일련의 활동을 하는데 이같은 제활동을 경영수단으로 발전시켜 기업을 계속기업(going-concern)으로서 통합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집단활동이 항상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탈궁히 전제된다. 기업경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확고한 기반상의 계속적인 수행을 희비하기때문이다. 여기에서 형식적으로는 각 구성원의 활동을 지위조정하기 위한 직무의 명세서인 구조, 즉 조직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소닉기 조직이론의 화법적 원칙 "권위" 이외의 못하고 이느성도 학문의 체계에까지 발전한 사실으서 경영의 내외적인 조직보다는 기업경영체의 구조적 측면을 착안하여 중요한 관리기능의 하나라고 보고 조직에 관한 즉 조직의 원칙, 특히 조직전의 고려 검, 권한등을 논하고 한국에서 당면한 조직상의 문제점을살펴 보고 결어로끝을 맺고자 한다.

1, 조직의 의의

먼저 organizing이란 말과 organization이란 말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조직을 뜻하는데 전반적으로 일부분을 만드는 과정(process), 후자는 process and structure 즉 과정과 체계화된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직의 출발을 J.D. Mooney에 의하면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노력을 결집할때 조직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조직이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인간협동(Human Association)의 형태」라고 했다. 또 지배 관한 견해로 일컬어진 조직론자의 대표자로 알려지고 있는 ALVIN BROWN은 경영조직의 경우에 「조직은 각 구성원의 협동적 활동으로 하여금 경영목적에 가장 잘 맞게 하기 위해 각 구성원이 수행할 역할과 구성원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종합하여 정리하여 보면 경영조직이란 경영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각 개인과 집단의 의무 및 범위를 결정하는 동시에 그들 상호간의 관계, 흐름을 규율하고 조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끝은, 경영조직과 관련조지는 F.NORDSIECK를 비롯한 몇몇 조직론자들은 등일하게 마루고 있으나 그 목적은 법률히 다르다고 하겠다. 조직규모에서 짧할할때, BROWN의 조직론이 특히 개인을 중시하고 있으나 조직이 커지면 개인의 중요성의 저감현상이 나타나고 관리자중의 주체도 개인보다는 관리조직 그것이고 따라서 관리는 조직적관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근대적 조직의 특색이 여기에 있다. 또한 GUTENBERG도 경영조직을 경영자의 「대상적 장」이라 하여 그 도구성을 강조하고도 있으나 경영자도 실표 조직의 일원이다. 그러므로 조직을 행하는 목적은 조직의 효율적인 「일원」을 성취 (Achievement of effective team work)하는데 있다고 할수있다.

이처럼 수단으로 체계화(Systematic)와 전문화(Specialization)를 필요로 하는 조직을 구체화함으로 목적달성을 이룩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원칙이 필요하다.

2, 조직 형성의 원칙 (principle of organization)

경영의 목적 정책 규모와 활동및 경영을 구성하는 인적요소가 상이한 이상 어떤 경영에도 적용될수 있는 조직의 「모델타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조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는 공통적인 사고방식, 즉 제 정세변화에 따라 합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조직원칙은 이상적 조직을 실제하는 경우 그 준거필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은 조직원리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1) 명령계통원칙성 (Unity of command)은 일원적이야 한다. 동일 업무에 종사 1인만 때에 동시명령지소도 명령할 수 없다. 환언하면 One man one Boss라야 한다.

2) Principle of Responsibility

①감독자의 책임과 권한은 성문화(In writing)되어야 한다.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명확하게 되면 책임소재의 혼돈을 초래우게 된다.

②책임, 권한상응의 원칙으로 책임은 상당히 권한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sponsibility should be always coupled with corresponding authority)만일 책임과 권한이 상응되지 못하면 즉 권한은 적게 위상되었는데 책임은 다면 모순을 낳게 된다.

③직무에 관한 한 상사의 책임은 절대적이다. 상사가 권한을 위양한다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시켰기 때문에 부하의 행동에 대한 상사의 책임은 절대적이다.

3) Principle of Specification

①조직구성원의 작업은 단일의 목수라야 업무활동을 하게 해야 하며 또 가능하면 vine조직과 staff조직은 분리되어야한다. 업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은 vine조직이 하고 vine조직활동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언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staff조직은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

4) Span of control

감독의 최고한계에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Staff이 가장 잘 전문화된 것이 군대이다.

그러나 Staff 부문의 발언력이 너무 강하면 Staff부문의 조선이 지휘명령계통의 일원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Staff이 가장 잘 전문화된 것이 군대이다.

그러나 Staff 부문의 발언력이 너무 강하면 Staff부문의 조선이 지휘명령계통의 일원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5) Flexibility

조직은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되도록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신축성이 없다면 조직은 최악의 폭로에서 벗어나 경기변동,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수 없게된다. 이러한 조직내의 신축성은 동양사회에서는 경여되었다고 하겠다.

이상 일반적인 조직원칙에 이어서 효율적인 집합을 위해서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에 민감해야 할다. 또할 직무분석성을 통하여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시에 개인에게 적성검사를 통하여 수집할 것을 고려 하면서 조직해야 한다. 또 조직전체의 경영의 기본방침의 전환에 따라 행하여지는 조직의 변화는 조직전체의 적응의 표현이다. 경쟁은 「파인」 부문은 전문적사항에 관해「스태프」부문의 조언 권고를 받으므로 일상의 업무 집행에 전념할수있다. 또한 계획통제와 실행이 분리 되고도 발달시 일관성과 직접한 응용시 확실히 되며 조직의 통제가 간소화되고 또한 융만을 통한서 목정인을 위한 권한직선 체택을 할수 있는 이론마 즉해들자로 거덕은 비정상적으로 확대만겨지게 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기형적인 발전과정을 걸어온 기업이 모든 전제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경영의 합리성을 저농제나마 추구하게 되자 새로운 여러가지 경영상의 문제점이 야기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걷자로 경상시킨 체도에 도달 되어 갔을 나타내는 징조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경영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개괄적으로 열거하고자 한다.

1) 비계획적 조직구조

상기 열거한 바 대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조직이다. 그중소기업 「카내기」는 「자본 노동이 없다 해도 조직만 되어 있다면 기업을 경영할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조직을 여하히 성공시키는 것은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혼란한 경제환경에서 경직적인 경제학 특해로 인 나아가서는 Inflation, 股投 등으로 인한 기업의 정태는 경영조직의 합리성 혹은 과학적인 발전을 방지 했다. 즉 계획성은 「경여성적 조직」이 이것에 마학 인원만 증시하여 계획성 조직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2) 창의력(creative power) 발휘

조직은 단순한 참여의식에 불과 하나 조직단위및 개성에 따른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열의, 의욕을 가일층 배양하는 원동력이 아니라 조직의 사기 앙양에도 실효적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이 3원의 기본원칙가 결조적 직제조직과 보장조직형태인 참모조직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①직선조직 (Line Orgnization)

이 형태는 경영자와의 사사, 명령의 상부로부터 하부로 직선적으로 전달되는 형태이다. 그 지휘, 명령의 관계가 군대조직과 같은고로 군대조직(Military organization)이라고도 한다. 각계열에 있는 자는 직선상위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위자는 상위자로부터 지휘와 명령을 받고 차례대로 부터는 받지 않는다.

장점으로는 지휘명령계통이 일관되고, 각 부문의 통일을 취하기 쉽다. 이와같이 책임권한의 관계가 명확하고 결제가 신속히 행하여지는 반면에 단점 으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화하게 되어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자원의 자기의 장기적인 면에만 집중하고, 필요로하는 모든 일에 숙달되어야 하므로 일의 질이 저하되고 조직이 약화 되기 쉽다.

③Staff oragnization

이것은 직계조직을 계량보강하기 위하여 H. Emerson이 고안한 제도로서 직선조직으로서 결점되어 있는 자 기능부문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원활한 수행을 돕고 이를의 각부문간의 조정을 도모하여 최고한을 돕타서 목정인을 위한 권지직선 체택을 할수

◇…「새 세대의 역사를 창조하」…◇
◇…「뭐 여기 한줄기 동방의빛」…◇
◇…온누리 비치는 외국어대학…◇
◇…온누리 비치는 외국어대학…◇
◇…1968년 4월20일·「대」…◇
◇…겨울호주라는 월드컵 1위…◇
◇…모교 「학문의배」를 피손키…◇
◇…「14년이 하루」……◇
◇…8·15해방과 6·25전란…◇
◇…후 이방에 밀어닥친 서구…◇
◇…희 물결, 다양성년 세계의정세는 국제…◇
◇…분계 십자군담당할수있는 인물을 요구…◇
◇…하게 되었고 또한 이산은 시대적 요…◇
◇…구가 「학문의국어대학」이라는 「외국어전…◇
◇…물 고향교육기관」의 탄생을 촉진시켰…◇
◇…다. 5개의 탄과에서 1회의화자로 출…◇
◇…어났고 3천여명의 동문을 배출하였…◇
◇…뭐 재학생만도 2천여명을 헤아릴만큼…◇
◇…성장한지금사학의 전당으로서 본대학이…◇
◇…지나온 14년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봄…◇
◇…으로서 「진리·정화·창조」의 비전에더…◇
◇…욱 영광스런 내일을기약해보고자한다. …◇

홉스랜드 14주년의 발자취

〈학장·캠퍼스〉

본대학의 창립자이며 현재단이사장인 동원 김종희씨는 일찌기 육영사업에뜻을 가져오던중 1952년 12월30일 김수희 경시인가 을받아 재단법인 한국육영회를 설립했다。(1961년12월29일동원육영회로 변경했다) 육영회를 설립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을 즈음 1953년7월31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외국어 전공대학을 설립하라」는 독촉장지가 내렸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분은 김수희 교무처장의 소개로서 한국육영회는 「한국외국어대학」을 창립하기로 결정, 1954년1월18일 경무경시인가를 받으므로서 「한국 외국어대학」의 탄생을 보게될 것이다。

1954년 4월20일 영문 학과 안호삼교수를 초대학장으로 영문과 2·3총임시교사에서 10여 고교로서 개교를 했다。

영어, 불어, 중국어, 도이취어, 러시아어등 5개학과를 설치하고 백여명의 학생에 20명남짓한 교수진이었다。개교당시의 교수진을 살펴보면金益孟, 金忠一, 李海南, 成鎬祉, 董氏, 李衆榮 金熙祿, 許守成, 韓喜石, 조지·데이비, 失說雄 李恒刻 등분이었다。

불비한 시설속에서도 학생들의활동은 활발하여 다른학교의 전를 빌려가면서 외국어 유명충회, 외국어 웅변대회, 영어과 연극 등이 꾸준히 계속되었다。

1955년 5월10일 2대학장으로 사회주장론을 역일한바있는 박승유(1902년출생)가 취임했다。

「주위가 뒤숭숭하다하여 호령 조용해 집중케 하라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탁한 사회를 깊화시키는데 선봉이 되어달라」고 희대인들의 지세확립에 역점을 두고 「희대」다운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그당시 강의실이 모자라서 주구 희원등에있는 전물 (현재는 도서관으로활용했다) 를 분교로 사용하였으나 도심지에서의 분위기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교육적 자연환경과 도시계획등 입지적여건을 고려하여 깊은 캠퍼스 주모지 중앙과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전설을가지고 이분들 부지를 희생선택했다。

1956년7월 현 본관공사가 착공되어 1957년 8월에 동원 일부만 낙성을보아 9월1일 시내 가교사에서 신축교사로 이전을했다。

「군셋스러운 생김 에서 새로단장한 캠퍼스에 첫발을 디디는 기분은 오랜여정 헐끝에 자기집으로 돌아온 듯한 포근함이었다。」

다시 그해 11월 본관 중축 낙성을 보아 총 건평 2.000평에 달하는 본관 3층교사가 원래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동분서 도가니 속에서」

중축교사 낙성기념으로 본대학 최초의 체육대회가 열렸다。

본관 전물 형식에 대해 「복수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시설 확비에 필리하도록 신경쓸타」고 당시관계자는말한다。

1959년 11월 본대학 불문학회 주최로 A Louer Mouebble(貸家)라는 제목의 학주 최초의 불어 연극이 상연되었다。

모든면에서 순탄한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1960년 4월 19일 발이 터져, 혼란한 사회정세가 학원에도 밀려와 본대학도 소용돌이 개교이후 가장 뜬 시련을 겪어야했다。

그해 6월 학생과 대학당국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50여일간의 동맹휴학사태가 있고 박승유학장은 모 일간지에 사퇴성명을 발표하고 학장직을 물러났다。

후임으로 당시 서반어어과 주임교수였던 학종원교수(1898년, 서울출생) 가 1960년7월1일 3대학장 서리로 취임하였으므로 질서가 어느정도 회복되어갔다。

12월 8일 시내 「문학」을학생세서 제1회 「의대 문학의 밤」이 개최되었다。

1961년2월2일 서울문리대교수인 권중휘교수 (1950년 안동출생) 가 3대학장으로 피임, 취임사에서 「좀 더 높은 세계관으로 생활하는 대학생이 되어야 하겠다」고 발표했. 서리로 대행되어왔던 학장자에 권학장의 취임은 학생들에게 「절정적인 환희」로 표현되었다。

1961년4월 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았다。

깊은데 4월에 수명여대 강당에서 개교이후 첫번째로 영어극 Othello가 공연되었고 11월에는 한국 최초의 서반아어극「La Gitana」가 공연되어 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42회 전국서울대회에서 본대학 전신가가 우승을 하여 학술면이나 체육면으로 확고한 기틀을 잡아갔다。

1961년 말에 비로서 본대학 할 도로확장공사가 시작되었다. 현 도로가 생기므로서 계구리 울울소리를 들으며 논길을따라 등학해야 했던 경서어린 그당시 모습은 옛얘기로 남게되었다。

1962년1월1일 전공취학장이 서울대학교 회장으로 이임하고 회교관 경력의 최원곡교수가 4대학장직 초대 대학원장으로 부임했다。

기자회견을 자주 갖기로 하여 서반아어극「La Gitana」가 공연되어 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42회 전국서울대회에서 본대학 전신가가 우승을 하여 학술면이나 체육면으로 확고한 기틀을 잡아갔다。

1961년 말에 비로서 본대학 할 도로확장공사가 시작되었다. 현 도로가 생기므로서 계구리 울울소리를 들으며 논길을따라 등학해야 했던 경서어린 그당시 모습은 옛얘기로 남게되었다。

1962년1월1일 전공취학장이 서울대학교 회장으로 이임하고 회교관 경력의 최원곡교수가 4대학장직 초대 대학원장으로 부임했다。

기자회견을 자주 갖기로

1964년1월1일부로 본대학 119학도군사훈련단이 창단되었다。

1964년 2월1일 본대학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대회사경선구소」를 신설 「한국의 대외전개 주제에 기여하겠다」고 신설취지를 밝혔다。

1964년은 對日굴욕외교규탄해프로 인한 6·3사태 초기방학을 가져왔다。

1965년3월16일 분교부설정서인가로 우리나라 대학사상 최초의 부전공제도가 외국어학부에 설치되었다. 정외과, 상경부, 문화부등 3부로 나뉘어져 졸업자의 사회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1965년 9월 독어과소속「독일주소」개소식이 DAAD 회장 Emil Lehnartz박사 참석리에 거행되고 회학장은 Lehnartz박사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1966년 1월 회원학장이 「하이모리코스」주제 대사로 임명을 받아 학장직을 사임함에따라

1966년 2월25일 박승유학사가 5대학장으로 취임, 이 현재는 외국어학부에 13개학과, 의사학부에 5개학과 총 18개 학과로 늘어났다。

정작로부터 자과의 설치를 인가받은 년월일을 살펴본다。

1954년 4월20일 : 영어과, 불어과, 중어과, 도이취어과 불어과。

1955년 4월 1일 : 서반아과

1961년 4월 1일 : 일본어과

1963년 3월 1일 : 이탈리아어과

1963년12월16일 : 회교과, 무역과, 마레이·인도네시아어과。

1965년 1월 7일 : 아랍어과 국제정경과。

1966년12월 1일 : 타이어과 폴투갈어과, 힌디어과。

1967년12월 6일 : 국제경제과, 국제법률과。

〈졸업생〉

1968년 2월27일로서 총11회의 졸업생 3.358명을 배출했다。

자과별 졸업생수와 회별 졸업생수를 살펴본다。

영어과 : 1.519명, 불어과 : 397명, 중어과 : 230명, 독어과 489명, 러시아어과 : 202명, 서반아어과 : 387명, 일어과 : 75명, 이태리어과 : 32명 마레이과 15명。

1회 (1957년도) 133명
2회 (1958년도) 129명
3회 (1959년도) 174명
4회 (1960년도) 277명
5회 (1961년도) 203명
6회 (1962년도) 439명
7회 (1963년도) 438명
8회 (1964년도) 574명
9회 (1965년도) 358명
10회 (1966년도) 302명
11회 (1967년도) 531명

〈자매결연·문화교류협정〉

1963년 4월18일 일본 천리대학과 외국어 대학과는 첫 자매결연을 맺었다。

현재 고쿠쇼수제를 마련하고 서, 중, 中村先, 平木貴교수가 본대학에체직했다。

1967년 5월22일 천리대학회 초청으로 김종희재단이사장이 도일, 교육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금년 3월말에 천리대학교 비일이 본대학 초청으로 내교하는등 비교적 활발하다。

1965년9월 8일 멕시코대학교 총장 「이그나시오 차베즈 (Ignacio Chavez) 씨와 「코롬비아 아메리카」대학총장 「루이스카데나 카데나 (Luis Carrea Cadena)씨가 본대학 초청으로 내한하여 당시 최원복학장과 자각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원에서는 법에문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같은해 10월 최원곡학장이 그 답례초청을받아 「멕시코」대학, 「코롬비아 아메리카」대학을 방문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왔다。

1967년 5월 「아」대학 초청으로 내한하여 당시 최원복학장과 자각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원에서는 법에문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같은해 10월 최원곡학장이 그 답례초청을받아 「멕시코」대학, 「코롬비아 아메리카」대학을 방문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왔다。

1968년 4월 「아」대학 초청으로 내한하여 당시 최원복학장과 자각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원에서는 법에문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같은해 10월 최원곡학장이 그 답례초청을받아 「멕시코」대학, 「코롬비아 아메리카」대학을 방문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왔다。

스물둘 꽃다발과 함께

「의대연극회」가 가지는 교고기념공연은 「존·패트릭 (John Patrick) 원작인 「사랑은 죽음과함께」(원명 The Hasty Heart) 4월23일, 24일 「드라마센터」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사랑은 죽음과함께」는 죽음을앞둔 한청년병사를 싱요로 진행되는「휴매니즘」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총 3막5장세 공연시간은 2시간반 연출에는 동국대학교 연극과출신 소유상씨가 맡았다。

〈스탭〉

김재룡(T 4)이분탕(A 3) 김주성(E 1)이성월(T 2)유종렬(T 4)이정남(V 1)이주원(S 2)이소형(A 2)이형신(P 2)

〈캐스트〉

취병병 : 김상이 (I L 1)
앞프 : 조은정 (S 2) 더거 : 최서석 (F 4, 키위 : 최광숙 (Min 1)톰슨병 : 김주남 (D 2) 토비 : 김상윤 (S 3) 데이 : 최경철 (Min 1) 헤키 : 김정시 (I 2) 마가렛 : 김문숙 (A 1)

〈줄거리〉

세계 2차대전 당시의 「아일랜드」의 한 항구」가 가지는 교고기념공연은 「사랑은 죽음과함께」는 휴매니즘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사랑은 죽음과함께」는 죽음을앞둔 한청년병사를 싱요로 진행되는「휴매니즘」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총 3막5장세 공연시간은 2시간반 연출에는 동국대학교 연극과출신 소유상씨가 맡았다。

〈스탭〉

김재룡(T 4)이분탕(A 3) 김주성(E 1)이성월(T 2)유종렬(T 4)이정남(V 1)이주원(S 2)이소형(A 2)이형신(P 2)

〈캐스트〉

취병병 : 김상이 (I L 1) 앞프 : 조은정 (S 2) 더거 : 최서석 (F 4, 키위 : 최광숙 (Min 1)톰슨병 : 김주남 (D 2) 토비 : 김상윤 (S 3) 데이 : 최경철 (Min 1) 헤키 : 김정시 (I 2) 마가렛 : 김문숙 (A 1)

〈줄거리〉

세계 2차대전 당시의 「아일랜드」의 한 항구」가 가지는 교고기념공연은 「사랑은 죽음과함께」는 휴매니즘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사랑은 죽음과함께」는 죽음을앞둔 한청년병사를 싱요로 진행되는「휴매니즘」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총 3막5장세 공연시간은 2시간반 연출에는 동국대학교 연극과출신 소유상씨가 맡았다。

〈스탭〉

김재룡(T 4)이분탕(A 3) 김주성(E 1)이성월(T 2)유종렬(T 4)이정남(V 1)이주원(S 2)이소형(A 2)이형신(P 2)

〈캐스트〉

취병병 : 김상이 (I L 1) 앞프 : 조은정 (S 2) 더거 : 최서석 (F 4, 키위 : 최광숙 (Min 1)톰슨병 : 김주남 (D 2) 토비 : 김상윤 (S 3) 데이 : 최경철 (Min 1) 헤키 : 김정시 (I 2) 마가렛 : 김문숙 (A 1)

〈줄거리〉

세계 2차대전 당시의 「아

연극회 연극

「휴매니즘」세계를 묘사

창립후 두번째 공연

합숙까지한 「리허설」

「사랑은 죽음과함께」는 희희 이번공연을위해 「지난 3월중순부터 하루 5~6시간씩 연습을 강행해왔으며 여러학생 (관객)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최선이 열성을 다하고있다」고 김재룡회장은 말한다。

「대도시」의 자동차의 이유는 출퇴하기못한 지경사정으로 무대의 간소성을 고려해야했고 또한 국중인물 모두가 개성이 뚜렷하고있는 「의대 연극회」는 희희 이번공연을위해 「지난 3월중순부터 하루 5~6시간씩 연습을 강행해왔으며 여러학생 (관객)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최선이 열성을 다하고있다」고 김재룡회장은 말한다。

「대도시」의 자동차의 이유는 출퇴하기못한 지경사정으로 무대의 간소성을 고려해야했고 또한 국중인물 모두가 개성이 뚜렷하여 연기가로 하여금 소화시키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게 김회장의말이다。

「사랑은 죽음과함께」는 죽음을앞둔 한청년병사를 싱요로 진행되는「휴매니즘」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총 3막5장세 공연시간은 2시간반 연출에는 동국대학교 연극과출신 소유상씨가 맡았다。

〈스탭〉

김재룡(T 4)이분탕(A 3) 김주성(E 1)이성월(T 2)유종렬(T 4)이정남(V 1)이주원(S 2)이소형(A 2)이형신(P 2)

〈캐스트〉

취병병 : 김상이 (I L 1) 앞프 : 조은정 (S 2) 더거 : 최서석 (F 4, 키위 : 최광숙 (Min 1)톰슨병 : 김주남 (D 2) 토비 : 김상윤 (S 3) 데이 : 최경철 (Min 1) 헤키 : 김정시 (I 2) 마가렛 : 김문숙 (A 1)

〈줄거리〉

세계 2차대전 당시의 「아일랜드」의 한 항구」가 가지는 교고기념공연은 「사랑은 죽음과함께」는 휴매니즘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사랑은 죽음과함께」는 죽음을앞둔 한청년병사를 싱요로 진행되는「휴매니즘」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총 3막5장세 공연시간은 2시간반 연출에는 동국대학교 연극과출신 소유상씨가 맡았다。

〈스탭〉

김재룡(T 4)이분탕(A 3) 김주성(E 1)이성월(T 2)유종렬(T 4)이정남(V 1)이주원(S 2)이소형(A 2)이형신(P 2)

〈캐스트〉

취병병 : 김상이 (I L 1) 앞프 : 조은정 (S 2) 더거 : 최서석 (F 4, 키위 : 최광숙 (Min 1)톰슨병 : 김주남 (D 2) 토비 : 김상윤 (S 3) 데이 : 최경철 (Min 1) 헤키 : 김정시 (I 2) 마가렛 : 김문숙 (A 1)

〈줄거리〉

세계 2차대전 당시의 「아

본대학탄생은 시대적요구

「학문의 배」순조로운 항해

유명했던 희학장은 「학교 발전의 주체는 학생들의 실력이므로 무엇보다 학업에 대한 의욕적인 정열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학장재직중 74기자, 19차 학술총회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도 하고 남미, 일본등 방문하여 본대학이 세계의 조류를 호흡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1962년4월 중앙FLC(The Foreign Language College of Korea)로 에스딘 영문교명을 HUFS(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로 개칭하였다。

1963년9월12일 총 건평 2.000평의 신관 4층 긴물이 3년만에 준공되어 도서관, 대학원, 교수연구실, 언어실험실이 마련되었다。

그때 9월 박승유교수가 2대 대학원장으로 임명되고 12월16일에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설치 인가를 받아 단대대학원으로서는 드문 사례를 남겼다。

1963년11월 한국에서 최올시도된 중국어 연극 (계목, 蔡與鳳) 이 도타마센터에서 공연。

1964년1월 : 일본어과

1963년 3월 1일 : 이탈리아어과

1963년12월16일 : 회교과, 무역과, 마레이·인도네시아어과。

1965년 1월 7일 : 아랍어과 국제정경과。

1966년12월 1일 : 타이어과 폴투갈어과, 힌디어과。

1967년12월 6일 : 국제경제과, 국제법률과。

〈졸업생〉

1968년 2월27일로서 총11회의 졸업생 3.358명을 배출했다。

자과별 졸업생수와 회별 졸업생수를 살펴본다。

영어과 : 1.519명, 불어과 : 397명, 중어과 : 230명, 독어과 489명, 러시아어과 : 202명, 서반아어과 : 387명, 일어과 : 75명, 이태리어과 : 32명 마레이과 15명。

1회 (1957년도) 133명
2회 (1958년도) 129명
3회 (1959년도) 174명
4회 (1960년도) 277명
5회 (1961년도) 203명
6회 (1962년도) 439명
7회 (1963년도) 438명
8회 (1964년도) 574명
9회 (1965년도) 358명
10회 (1966년도) 302명
11회 (1967년도) 531명

〈자매결연·문화교류협정〉

1963년 4월18일 일본 천리대학과 외국어 대학과는 첫 자매결연을 맺었다。

현재 고쿠쇼수제를 마련하고 서, 중, 中村先, 平木貴교수가 본대학에체직했다。

1967년 5월22일 천리대학회 초청으로 김종희재단이사장이 도일, 교육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금년 3월말에 천리대학교 비일이 본대학 초청으로 내교하는등 비교적 활발하다。

1965년9월 8일 멕시코대학교 총장 「이그나시오 차베즈 (Ignacio Chavez) 씨와 「코롬비아 아메리카」대학총장 「루이스카데나 카데나 (Luis Carrea Cadena)씨가 본대학 초청으로 내한하여 당시 최원복학장과 자각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원에서는 법에문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같은해 10월 최원곡학장이 그 답례초청을받아 「멕시코」대학, 「코롬비아 아메리카」대학을 방문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왔다。

1968년 4월 「아」대학 초청으로 내한하여 당시 최원복학장과 자각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원에서는 법에문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같은해 10월 최원곡학장이 그 답례초청을받아 「멕시코」대학, 「코롬비아 아메리카」대학을 방문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왔다。

「더어티 플레이」를 추방하자

「럭비」를 부리던 당신가능성이 농후하다. — 럭체도이 럭시이다。

돈을 마련하자니 거짓말이 아니면 밑경기가 되어 아깝고 자중히 「레도」하자 속하자니 술을 마셔야 한다. 그때서 선거가 가까우면 학교구근 술집은초만월을 이루고 수라장을 이룬다。

최저도 못한 「도박」과 경기 중가시 도박장치를 부치는 소년도, 학교본을 제외하고 있으나 개탄할노릇이다。

어쩌면 이런 수라장같은 곳에서 당선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건말 바라진다. 합편으로는 학생들이나 원체 자기의 위치를 비관만성체로 「거짓」로 이는 졸음의 방향」으로 「일부모라는 전부를위해」 일탈상도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반사회에서 자랑체교있는 수재는 학원에서 결코 용납될수없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열통의 소용돌이속에서 도 유결자는 유원자체로 일부로자는 일부로자체로 일부로자는 자체로 일부로자는 자체로 일부로자는

特 외대14년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지리멸렬한 교과과정

근본적인반성은학생자신이

교수기근현상 빚어낸 대학

「보따리장수」의 집합소로 전락돼

◇…「상아탑」—거기에는 끝없는 이상과낭만이 있다. …◇
◇…. 그리고 진리탐구를 향하여 전진하는 젊음들…◇
◇…이 있다. 12세기 중엽 이태리의 「볼로냐」 대…◇
◇…학이 생긴 이후 각국에선 많은 대학이 생겨…◇
◇…났다. 신문화와 함께 우리나라도 대학이 설…◇
◇…립,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래를찾…◇
◇…을 수 없을만큼 많은 대학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
◇…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문화 교류및 발전에…◇
◇…기여케 한다」는 교육이념 아래 1954년 우리…◇
◇…한국외국어대학이 창설되었다. 독수한 사명을…◇
◇…띤 국내 유일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외대는 그동안 어디까지 온 것일까?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밝은 「비전」을 찾…◇
◇…을때가 이제는 온 것같다. 외대를 걸머지고있→

▲S 나와 주시서 감사합니다.

숱한 혼란과 사회의 시련속에서 고고히 소리를 울렸던 본 대학이 오는 20일로 개교 1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대학이 독수사명을 띤한국의 유일한 「외국어 대학」으로 많은 비판과 찬사를 받으면서 장족의 발전을 하여 온것만은 틀림없을듯합니다. 이제 여러 성년기에 접어든 본 대학의 오늘을 이 시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천착의 분석하고 냉철히 자아반성하고 보고 싶어 나온 내일, 보다 앞찬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봄도 그럴듯한 일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흔히 본 대학을 「비전」 없는 대학이라는 말이 나오곤 했지요. 그 원인은 역시 우리 대학의 역사가 짧다는 것에도 있겠지만 본 대학이 2차(第二1차)졸업 배출되었읍니다만) 라는 것과 여러 가지 불충분한 학생이 이 모였기 때문에 이상한 Complex가 최술부터 내재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종합 대학화정책, 여러가지 방법하고 타학교 「예술」 학문을 통해 마음껏 발산할 기회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우리는 이런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위축 되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런점 학교 당국이나 선배, 교수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비비」 해 줬으면 하십니다. 이런 실정이니 재학생들은 제기분위기에 빠져도 있어야겠지만 학교 당국의 정책적인 연구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Y: 현실적으로만 너무 치중하는것이 아닐가 생각됩니다. 학교 당국이 「비비」 하는 것과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것과 상호간 의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먼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S: 나와 주시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대학의 역사가 짧은 것에도 있겠지만 본 대학이 2차(第二1차)졸업 배출되었읍니다만) 라는 것과 여러 가지 불충분한 학생이 모였기 때문에 이상한 Complex가 최술부터 내재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종합 대학화정책, 여러가지 방법하고 타학교 「예술」 학문을 통해 마음껏 발산할 기회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우리는 이런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위축 되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런점 학교 당국이나 선배, 교수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비비」 해 줬으면 하십니다. 이런 실정이니 재학생들은 제기분위기에 빠져도 있어야겠지만 학교 당국의 정책적인 연구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Y: 현실적으로만 너무 치중하는것이 아닐가 생각됩니다. 학교 당국이 「비비」 하는 것과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것과 상호간 의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먼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S:

오늘과 내일

긴급 좌담회

△윤 병 국
(F B S국장)
△이 성 덕
(The Argus 편집장)
△이 왕 렬
(SASA 회장)
△조 영 일
(중어과 4년)
○사회:신 재 홍
(본보 주간)
○기록:본보 기자

좌담 광경)

빈곤한 문교정책원인

권위에 눌려버린 「인생복덕방」

효율적인부전공제 아쉬워

교수학생 대화로 「멜팅 팥」이뤄야

학생들부터 반성을

S:우리대학의 역사가 짧고 아직 과도기적인 위치에 처해 있으므로 여러가지로 불만스럽 일들이 많은 것만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학생들 자신도 반성해야할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공부하는 고수」보다는 「공부하는 학생」이 더 문제가 되겠지요. 때문에 문교부의 「공부하는 대학만」이 아닌 「공부하는 대학교육과 자율성이라는 것을 위한 방책」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요는 학생들의 태도에 변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평생 경제성장하시는지?

K:아까 어떤분이 교수들의 challenge, 학생들의 response라는 말을 얘기했 나요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도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열을올려 공부하고 질문하는 진지한학자세를 취한다면 아무리 실력이 없는 교수라도 방도시 연구하고 성과한 강의준비를 하게 될것입니다.

도서관을 돌아가보세요. 경탄 한심스럽습니다.

K:그러나 커가 보기로는 교수님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분은 7~8년 전에 가르치던 외국수필을 지금까지도 번역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전이 필요없다는건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건전 연구를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들한 대가 같습니다만 그런 식이 바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이워석은 생각도 듭니다. 대학이라는것이 사회공헌의 자질향상을 위한 마당이 되기도 할것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교수들이 새로운 세계사조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할것인데… 경탄 한심스럽습니다.

K:그런데 커가 보기로는 교수님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분은 7~8년 전에 가르치던 외국수필을 지금까지도 번역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전이 필요없다는건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건전 연구를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들한 대가 같습니다만 그런 식이 바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이워석은 생각도 듭니다. 대학이라는것이 사회공헌의 자질향상을 위한 마당이 되기도 할것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교수들이 새로운 세계사조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할것인데… 경탄 한심스럽습니다.

K:그러나 커가 보기로는 교수님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분은 7~8년 전에 가르치던 외국수필을 지금까지도 번역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전이 필요없다는건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건전 연구를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들한 대가 같습니다만 그런 식이 바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이워석은 생각도 듭니다. 대학이라는것이 사회공헌의 자질향상을 위한 마당이 되기도 할것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교수들이 새로운 세계사조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할것인데… 경탄 한심스럽습니다.

부진한 학생자치활동

K:자치활동하면 학생회를 생각하게 되는데 학생회 자주권 확립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모든자치단체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야하고 전체학생들의 여론을 이끌어 나가야할 학생회는 무엇보다도 모범적인 자세를 가져야겠지요.

말하자면 손가락질 받는 학생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는데 사실상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학생회간부라면 오해하기 강의 시간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잘못 하기 쉬이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쥐 학생들을 위해 학는 일이 있습니까? 그저 불쌍하게 여기고 형사의 입장인 「최스티밍」가 아이면 또 쥐 학교 있겠습니까? 정말 구심적 역할 잘 합니다! 그리고 학교사는 뜻하는 것 입니까? Press Campaign을 해 여론을 형성해 주는역할을 담당해야지. 아마 지도교수가있을것으로보는데, 모두들 반성해야겠읍니다.

학생회는 지도자가, 아니 마 포럼자일을 할아야 할것이며, 학보사는 좋다 나 약점을 발굴하여 강력한 필고자의 입장에 서야겠을로 믿습니다.

K:;학생회의 자치활동은 한마디로「카니발 정부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도다…여태까지 한국의 학생활동은 정치참여나 사회참여로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즉 Student movement는 있어도 Student Activities는 없었다고 볼수있지요. 이러한 비뚤어진 학생활동의 개념은 이제 바로 고쳐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어떻 형사에 학생들이 모이는것을 학생회는 자기들에 대한 지지나 호응으로 보는데 큰 잘못이다. 오히려 학생회는 학생전체와는 유리되어 있는 학생전체와는 유리되어 있는 학생전체와는 유리되어 있

대학의 진로와 장래

◇……교육이란 국가 발전의 「장기……◇
◇……투자」이다. 그중 특히 비혜……◇
◇……를 다스릴 역군의 최고학부……◇
◇……인 대학은 「장기투자」의 노……◇
◇……튼자위이다. 시대에 따라 국……◇
◇……가 사회가 요청하는 대학의……◇
◇……임무와 사명은 변천해 나간……◇
◇……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학의……◇
◇……진로와 장래는 무엇인가? 대……◇
◇……학의 이상향을 펼쳐본다.……◇
◇……<권점자주>……◇

김 봉 삼
<세계대학 봉사회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모방주의 지양을
한국대학이념과 제도 확립해야

대학의 기원은 희랍시대에 「프라톤」의 「아카데미아」와 「아리스토 텔레스」의 「루케이온」에서 볼 수 있으나 현대대학의 기원은 12세기의 서구에서「르네쌍스」를 전후하여 발족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도 그전통과 학밀을 자랑하는 이태리의 「사리노」의대 「보로그나」의 법대 발단의 「모후나델 리」의학 천학 학과 신학으로 명성이 높은 자대학들이 그때에 창설을 보았는데 그동기는 어디까지나 당시 배우려는 학생과 자기가 가진 건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려는 교사와의 자발적인 집단으로 시작 된것이 오늘날 대학의 시초가 된것이다.

이와같이 학생과 선생간의 자발적인 현상으로 출발된 대학이 사회의 변천과 함께 당시의 권력중심 법왕과제왕의 감독과 제재를 받게되는 한편 사회적인 특권도 향유하게 되었고 대학의 제도와 하는 한편 학칙도 규정되었다.

당시 대학의 규정을 보면 국경을 초월하여 학생을 받을것과 무게 이상의 학부를 갖출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시에 그대학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학위에서 나 닙을 교육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한다는것 등이다.

그러나 역사의 변천과 함께 대학의 성격도 현저하여 13세기로부터 18세기까지 오는동안 대학의 이념과 제도가 변경을 거듭하였으며 倫·伊 보다 늦게 창설한 英·佛의 저명한 대학들도 창설과 함께 그 국가사회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였다.

즉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통치가 오게 되고 근대적 국가와 사회로 변천하는 동안 대학 대학은 세계적인 출발로 시작하였으나 국가적인 대학으로 전환 되였고 독자적인 것보다 국가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대학의 제도와 강의내용 까지 수시로 달라지게 되어 18세기말의 대학은 일반사회와는 유리되어 있는 지배계급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듣게 되었다.

그때서 18세기의 나폴레옹은 중세부터 전래 하여온 대학제도를 개혁하여 대학과 사회가 직접하는 전문적인 학과를 교육하는 중산산으로 계획 하였고 독일은 국내의 불통일과 사회적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충창적인 교육제도에 중점을 두는등 각국대학의 발전에 그나라 사정에 따라 각이하였는데 英·佛·獨 각대학의 제도와 이념을 배웠하던 영국은 대학을 국가로부터 독립 사립단체로 자치의 자금과 힘을 가졌으며 그 목적은 학자의 양성보다 한정된 인간 즉 훌륭한 신사를 만드는 것이며 불란서는 재정권은 대부분 국가가 조정하고 학부제도의 중점을 두어 과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독일은 대학이 자발적인 단체로 하되 국가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의 문제 중심으로 하되 전문가 양성 또는 과격주장 등 이상에서 논것을 암시하고 있다.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발전한 구비자국의 저명한 대학현훌에 비하여 한국의 대학은 아직 대동기년에 불과하다고 할수있다. 8·15 해방전 까지도 남북한을 합친 전역에 대학교 한개와 전문학교, 전문교기준에 준한 자중학교 8개등을 합쳐 약 20개교에 불과하였고 그 전국 전문학교 정도의 계적성을 다 합쳐야 7천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한만도 약150여교로 종합대학교 단과대학 및 자중대학이 있고 학생수는 약 17만수를 파시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불과20년 내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백년에 걸쳐서도 못이룩한 대학학교를 감행하고 보니 거기에 수반되는 혼잡 무리와 모순도 비일비재로서 오늘의 한국의 대학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물의와 기탄을 받는것도 사실이다.

필자가 서전에 갔을때 그곳 대학의 강사가 세계학술지에서 한국 대학교수의 논문발표를 아직 못보았기 때문에 한국에는 대학이 없는줄 알았다는 말을 들었다. 서독사회의 지도자들은 사회의 가장 존문제는 나치스 시대에 인재양성이 중단되어 대전후 교수무족으로 대학교가 재개 중설하지 못하는것이 문제라고 자탄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튼 한국에 있어 대학교육은 유럽과 같이 자기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려는 교수가 중심된것도 아니고 미국과 같이 민주국가의 공익기관으로 학재한 국가적, 개인적 예산을 투입하여 훌륭한 인주시민을 양성하려는 이념도 부족하다.

이상의 英·獨·佛·獨의 대학의 제도와 교수 학자이상이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은그들과 대학중에서 그들의 인간성이 다른점을 엿볼수 있다.

대학의 활동은 국가범위를 고려하고

즉 독일인은 상대에게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의 문제 중심은 그 이면 인간 또는 과격주장 그들의 개성 또는 교육적 목격과 이상에서 온것을 암시하고 있다.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발전한 구비자국의 저명한 대학현훌에 비하여 한국의 대학은 아직 대동기년에 불과하다고 할수있다. 8·15 해방전 까지도 남북한을 합친 전역에 대학교 한개와 전문학교, 전문교기준에 준한 자중학교 8개등을 합쳐 약 20개교에 불과하였고 그 전국 전문학교 정도의 계적성을 다 합쳐야 7천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한만도 약150여교로 종합대학교 단과대학 및 자중대학이 있고 학생수는 약 17만수를 파시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불과20년 내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백년에 걸쳐서도 못이룩한 대학학교를 감행하고 보니 거기에 수반되는 혼잡 무리와 모순도 비일비재로서 오늘의 한국의 대학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물의와 기탄을 받는것도 사실이다.

필자가 서전에 갔을때 그곳 대학의 강사가 세계학술지에서 한국 대학교수의 논문발표를 아직 못보았기 때문에 한국에는 대학이 없는줄 알았다는 말을 들었다. 서독사회의 지도자들은 사회의 가장 존문제는 나치스 시대에 인재양성이 중단되어 대전후 교수무족으로 대학교가 재개 중설하지 못하는것이 문제라고 자탄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튼 한국에 있어 대학교육은 유럽과 같이 자기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려는 교수가 중심된것도 아니고 미국과 같이 민주국가의 공익기관으로 학재한 국가적, 개인적 예산을 투입하여 훌륭한 인주시민을 양성하려는 이념도 부족하다.

현하 우리대학의 이념은 주었인가? 여러가지로 정리를 내릴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 가르치려는 교수와 배우려는 학생들이 하나의 결탁체가 되어 연구와 교육하여 한국사회가 요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어야 하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한국대학이 포함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가 속히 타개되기를 바란다. 즉 연구의 자유고써 교수와 학생의 연구의 자유 장소로써 그국가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를 대학인으로써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가장 경탄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대학이여야 하겠고 그방법으로는 수백의 학생들을 앉혀 놓고 공식적인 강의를 하는것도 필요하지만 교수와 생자과 학생의 생기을 접근시키기 위한 개인적접촉 대학내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대학의 이념은 상기 한바와 같이 연구교수및 인격교육과서 이를 취하여 대학의 제도와 학칙이 필요한것이나 그제도와 규칙은 대학의 근본이념을 발휘하는 것도 적지 않은것이다. 그때서 학문의 자유 학원의 자치 등을 부르짖고 있으나 세계 어느나라 대학을 훌륭하고 자치를 보장하는 이념 희시한 자유와 자치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 국가지치에 대한 연구의 자유는 보장되었으나 구체적인 경지 활동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대학은 언제나 초월한 중립성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일 대학한테서 교수가 개인적인 인생이나 세계관 또는 국가관을 학생에게 강요 하는 한다든지 학생이 교수와 교우에게 자극을 받아 비학문적인 행동에 출입하는 일등은 대학에서는 있을수 없다고 본다.

대학은 성격적으로 보아 세계적이고 초국가적 이라 할지라도 대학의 실제적인 활동은 국가의 법위를 벗어나면 는 안되는 한는것이 구미선진국에 있는 지배학에 이념일을 자각하여 한국의 대학이 학문을 위한 진전한 이념을 확립하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학이 되어야겠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과 학생수가 너무 많은것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으나 일본나나 독의에 비하여 겨우 대로 우리가 많다고 할수 없으며 또한 대학이 많아서 국가적으로 손해되것도 없다. 요는 여하히 거상대학의 질을 높이며 서울과 지방에 지역학의 존재의의와 특색을 키워 나가느냐가 급한 문제로써 이것 역시 멀지랍은 장래에 유능한 학생들가들을 통하여 개선할상 질문을 확신하고 한국대학의 장래는 밝다고 말하고 싶다.

× × ×

우리나라 대학을 평하는 데 두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국가발전도 결국 마지고보면 인간이 하는 일이고보면 주체중 먹하기 위해서교육열은 평창발수록 바빨적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은 현재 많은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늘여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대학 당국들으로 유명무실한 질치제의 대학만 늘여가고 내놔나도 하고 는만 제기 발하기고 그 대학에를 들어가는데 심정지만 늘여나는 사회현상으로 보더라도 반갑지 않다는 견해이다.

두가지가 다 일리있는 논이다. 창한이고 기술이고 과학이고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고보면 그러한 기술자를 많이 배출하는것이 중요일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과학발명의 인재를 길러내는 이공계대학은 한 강의실에 2, 3백명씩을 쑬어넣고 마이크를 통하여 대량 생산할수 있는 인문 사회계 대학이 더 번창하니 문제는 이런것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고 인문계가 발전화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하는 사람 예술가, 정치가, 법학자도 많이 나와야 하지만 대학문과 출신이라야 시인 소설가가 된다는 이론은 없고 그많은 법학자 정치가들이 대학의 문을 나왔지만 우리의 현실사회는 주먹 구구식이고 사회도 줄탁동시고 있다는 인상만 주드러지게 구고 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이 있지. 금년이 그들이 개화한지 100년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들보다도 비개하된 그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훨씬앞을 섰는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 때문은 단결해본이만 주었이라 하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일찌기 서구의 과학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국가정책이 우리네들과 같은 쇄국정책을 쓰지않고 이방인들을 이단시하는 이보다 받아들일것은 받는 국이 개명하고 그렇지 않은 국이 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생시 시작되는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외국어능력만 보더라도 우리들이 그곳보다 더 우능하다는것은 누구나가 다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이조말기 우리나라 대학은 정하는 데 두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국가발전도 결국 마지고보면 인간이 하는 일이고보면 주체중 먹하기 위해서교육열은 평창발수록 바빨적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은 현재 많은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늘여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대학 당국들으로 유명무실한 질치제의 대학만 늘여가고 내놔나도 하고 는만 제기 발하기고 그 대학에를 들어가는데 심정지만 늘여나는 사회현상으로 보더라도 반갑지 않다는 견해이다.

두가지가 다 일리있는 논이다. 창한이고 기술이고 과학이고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고보면 그러한 기술자를 많이 배출하는것이 중요일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과학발명의 인재를 길러내는 이공계대학은 한 강의실에 2, 3백명씩을 쑬어넣고 마이크를 통하여 대량 생산할수 있는 인문 사회계 대학이 더 번창하니 문제는 이런것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인문계가 발전화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하는 사람 예술가, 정치가, 법학자도 많이 나와야 하지만 대학문과 출신이라야 시인 소설가가 된다는 이론은 없고 그많은 법학자 정치가들이 대학의 문을 나왔지만 우리의 현실사회는 주먹 구구식이고 사회도 줄탁동시고 있다는 인상만 주드러지게 구고 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이 있지. 금년이 그들이 개화한지 100년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들보다도 비개하된 그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훨씬앞을 섰는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 때문은 단결해본이만 주었이라 하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일찌기 서구의 과학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국가정책이 우리네들과 같은 쇄국정책을 쓰지않고 이방인들을 이단시하는 이보다 받아들일것은 받는 국이 개명하고 그렇지 않은 국이 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생시 시작되는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외국어능력만 보더라도 우리들이 그곳보다 더 우능하다는것은 누구나가 다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이조말기 서구의 과학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대학과 그 언론

대학의 언론은 당국의 비위 기분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가?
대학신문은 당국의 대변지로 대학방송은 당국의 행무새로 만들려 하는가?

대학대학신문

오 주 환

〈고대신문주간〉

훈의 우리는 대학은 「열린 학 요람」이라고부른다.

이말의 뜻은 대학이 하루아침에 세워졌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린다는 불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일천성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영원성 관 정신적 의미에 있어서의 영원성을 뜻하는 말이라고하겠다.

대학의 전통은 영원한것이다.

그러기때문에 대학의 전통은 깊고도 넓다고 표현된다.

이 깊고 넓은 대학의 전통, 곧 어느의미에 있어서 대학정신의 정수는 바라서 하루아침에 형성되거나 하루아침에 파괴되어 버리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오랜옛은 동틀사회의 이끼와도 같이 역사와 더불어 가꾸고 키우며고 애써 온 형성의 불부림 위에서 그것의 수립은 가능한 것이며 또 그러기때문에 그것은 하루아침에 불거졸의 협 사라져버릴 수 있는성질의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어떤 대학이 어떤 전통의 특성과 어떤대학정신을 가지고있느냐하는것은 곧 그 대학이 처해있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다고하겠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대학의 전통이란 어느 의미에 있어서 역사적 특수상의 신물이라고도 하겠다.

한국대학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주엇이 대학정신이며 무엇이 대학의 전통인가를 무엇이 대세추기에는 아직도 밝은 전문을 생각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비원성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대학이 처해온 역사적 상황은 특특한 일면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러기 때문에 한국대학의 전통 역시 그 독특한 역사적 상황에 근거한 독주성을 갖고 내려왔다고 보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대학의 전통은 「무경과 저항」의 두 명도였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일제치하의 민족독립운동이 그러했고 해방 후에는 6·25를 중심 공산주의와의 투쟁의 역사가 그러했고 이정권하에서는 독재정치와의 투쟁의 역사가 또한 그러했다.

이렇게 단면한 국대학의 특이한 「역사상황의산물」이 바는의 의미에 있어서 그것이 이라고 의학적 과정에서 그것의 수립은 가능한 것이며 또 그러기때문에 그것은 하루아침에 불거졸의 협 사라져버릴 수 있는성질의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어떤 대학이 어떤 전통의 특성과 어떤대학정신을 가지고있느냐하는것은 곧 그 대학이 처해있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다고하겠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대학의 전통이란 어느 의미에 있어서 역사적 특수상의 신물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면 이와같은 대학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인가?

물론 대학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가지요소가 있겠지만 대학신문도 그 추진력의 한요소라고볼 수 있을 것이다.

훈의 우리는 대학신문을 대학사회의 여론의 창달자라고 부른다.

그것은 대학신문이 가진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바, 그 가운데 서도 특히 대학신문은 대학사회에 있어서 중핵적인 여론형성자 (A nuclear opinion-leader) 라는 점을 간과할수 없을 것 같다.

여론이란 그때 그때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의 종화일수도 있지만 또 다른한편으로는 전통의 형성과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신문이 대학사회의 훈창달과 전통의 형성에 미치는 힘은 크다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등태적으로 파악할때 수 있는 전통의 형성 과정과 전통의 전개과정으로 2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학신문이 대학의 전통에 미치는 영향이 한 전개과정에서보다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전통의 형성과정에서는 가치의 다양화를 요구하고있고 대학신문이 대학사회에서 지닌아량의 한계 또한 「가치의 다원화」에 대한 수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의 역사는 비교적 짧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대학의 전통도 아직은 전개과정에 있다기보다 형성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신문 훈이 추구하야 할것도 이 전통의 형성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치의 다원화에 대한 추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의 다원화란 첫째로 사회의 변화에 앞서는 가치체계의 추구를 뜻한다.

대학이 지성인의 요람이라면 지성인의 요람에서는 언제나 사회보다 한발짝씩 새로운 세계가 끊임없고 탐구되고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의 다원화란 둘째로 낡은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는것을뜻한다.

만약 대학사회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낡은 관념에 머물러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

외대학보사가 나에게 준 두가지 제작은 외대를 떠난지 만 9년에 가까운된 격세계대답의 여러운 제작이다. 차라리 원고집단에응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번 하였다.

그러나 외대학보사의 요청이니 만치 NO라는 말이 나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필자의 심경을 양찬하시고 이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시면 고맙겠다.

1920년 일본 「도쿄(東京)」에는 사립의 강학을 중점이 있는 모대학 강당에서 들은 일이 있다. General election을 곧 실시하여야 한다는현경 중요 현실이었다.

「동상하는 사람에게는 길은 돌발에 지나지 않는 부소상도 멀리 떨어져서 보면 거꾸로 든 적신같이 아름답다. 그런데 길리 외국에가서 바라 본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내에서 볼때보다도 더러워 보였다.」라는 말이 그 현실 가운데 있었는데 하도 유창하고도 힘있는 울빛이 있기 때문에 내귀에는 이말이 아직도생생하게 尼鳴하는 부소산을 발래의 비유로 썼지만 필자는 그것이 과연 옳다는 데도들려고 한다.

내가 외대 안에 있은것은 1954년 4월20일 개교시부터 1959년 까지이다. 백일이 지나서 돌 맞이하는 아기 모양으로 귀여운 시기도없지 않았지만 흙부성으로모를 흘리면서 쫄이나 골목에서 자갈하는 3·4·5세의 거친은 시기가 더 겪었다.

일단 물리서서 밖으로부터바라보는 외대는 질길보아줄라는 외대이다. 이제와서는 2·3월은이 눈알에있는 외대이다. 학계의 주돌성으로서 국가사회의 외대 대한국당은 대단히 크다. 이라드으로 혁은 외대의 Badge (서울대학교 비슬대학 이순재교수의 도안) 는 청소년 돌의돌모의 대상이 되고 국내외에서 외대출신들이 활동하는모습은 순수시다는 일로서 힘들이 청소년 출연주 3·4년이면 어디가나 중견이 되고 선배들은 대개 사회의 요소 요소에서 중책을 지고 일하고 있다.

1945년 해방되시부터 8년간 외대를 중해 그럼 고 1953년 8월부터 8개월동안 외대를 대아로 길렀고 일년 4월 개교이래로 5년간 외대교육에 지장 참여한 필자는의 의 돌라온의 이 돌라온 성장을 무안한 기쁨으로 보고있다. 외대를 키우시는 여러분들의 공적을높이 평가한다. 외대가 사회에 대하여 이바란 기여를 해왔고 또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느 한사람보다 온 세상이 더잘 알고 있다. 파리 대학은 850년 Oxford는 850년에조금 미달 Cambridge는 7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있다.

외대가 백년 천년을 이어가면서 어떤 특색을 가진 학교로 발전하리라 하는것은 이 마당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외대라는 명칭과 이 나라 마이사회의 현세에 부합하는 외대의 특색은 반드시 있고 또있어야 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필자는 「외대의 특수성이 이러한 점에 있어야 한다」 「외대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나가야 한다」등의 진방제 말은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처지에도 있지 않다. 다만 청고청학에 흥한 채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대 창설 당시 필자가 머리에 그리던 대표적 외대출신의 모습을 그려서 주어진 제목에 대한글을 대신하려고 한다.

①거짓 없고 덕망 높은 사람 외국어이다.

②시야가 넓은 사람 외국어이다.

인도의 전수상 「네루」가 그 나라의 국어에대한 불규가 있었을 때 국회에서 한 말 가운데 「영어는 동서고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바늘의 창문이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영어뿐 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의 지식이 사람의 한계를 넘치다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시야가 좁고 모든 사고방식이 너무나 고루하며. 대국민으로서 국제무대에 일할 기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많다. 이러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고루사상 타파의 선구자로서 출람 외대 출신 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외대출신은 특이 넓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은 들은 우리의 고유문화의 과리나 별시를 중용하는 말이 아니고 내외 문화의 빈강할 비교와 비판으로서 향상과 진취의 거강을 양성 하자는 뜻이다.

③외국어를Tool로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모국어의 학습도 어렵지만 외국어를 완전히 Master 한다는 것은 도저히 4, 5년간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이아니다. 독일어를4년이나 공부했으나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반일 있다면 그는 정히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4년동안 꼭 같이 공부한 50명의 실력을 test 해 본다면 20명 부터 90점의 실력을 가지고사회에 나서는것이옳을 조하다고 보는 일이전성으로만 중지이는 이 사회이치 만물 복잡한 전문적 기능과 지식은 사회에 나설때 겨일 단계의 발판이 된다. 여기에 청가되어야 할 것이 공부한 사고력, 정확한 관단력, 전일발달의지력,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원만한 협조성과 위대한 지도력이다. 남의 자수를 나의 것과 같이 아껴고 타국의 위신을 아국의 위신과 같이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유능한 인간이다. 앞에서 말한 덕망이란 이런 사람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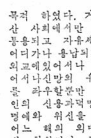
Tool은 무엇이든 용도에 맞아야 된다. 태체나, 글은 에리하여야하고 돌려는 마치는 쇠가 강하고 무게가 있어야 한다. 선거시대에쓰인 도끼는 선거시대에 만든 장도 작은 것이 같은 말이 가나 tool 도서의 쓸모는 없다. 외대출신의 외국어는 쓸모 있는 외국어 따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사무리를 쓰는 글방 선생님이 계시는 에게 「나는 하늘 천 (天) 하지만 넓히줄은 하는 것 뿐이라고 답부한다는 말이 있다. 두뇌가 청신나고 의기가 발랄한 외대생 여러분께 해줘 작은 수신책의 이야기 같은 말씀을 드리어 죄송하지만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4년동안 꼭 같이 공부한 50명의 실력을 test 해 본다면 20점 부터 90점의 실력을 가지고사회에 나서는것이옳을 조하다고 보는 일이전성으로만 중지이는 이 사회이치 만물 복잡한 전문적 기능과 지식은 사회에 나설때 겨일 단계의 발판이 된다. 여기에 청가되어야 할 것이 공부한 사고력, 정확한 관단력, 전일발달의지력,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원만한 협조성과 위대한 지도력이다. 남의 자수를 나의 것과 같이 아껴고 타국의 위신을 아국의 위신과 같이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유능한 인간이다. 앞에서 말한 덕망이란 이런 사람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Tool은 무엇이든 용도에 맞아야 된다. 태체나, 글은 에리하여야하고 돌려는 마치는 쇠가 강하고 무게가 있어야 한다. 선거시대에쓰인 도끼는 선거시대에 만든 장도 작은 것이 같은 말이 가나 tool 도서의 쓸모는 없다. 외대출신의 외국어는 쓸모 있는 외국어 따야 된다고 생각한다.

모국어를 학습도 어렵지만 외국어를 완전히 Master 한다는 것은 도저히 4, 5년간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이아니다. 독일어를4년이나 공부했으나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반일 있다면 그는 정히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4년동안 꼭 같이 공부한 50명의 실력을 test 해 본다면 20점 부터 90점의 실력을 가지고사회에 나서는것이옳을 조하다고 보는 일이전성으로만 중지이는 이 사회이치 만물 복잡한 전문적 기능과 지식은 사회에 나설때 겨일 단계의 발판이 된다. 여기에 청가되어야 할 것이 공부한 사고력, 정확한 관단력, 전일발달의지력,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원만한 협조성과 위대한 지도력이다. 남의 자수를 나의 것과 같이 아껴고 타국의 위신을 아국의 위신과 같이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유능한 인간이다. 앞에서 말한 덕망이란 이런 사람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본대학 초대학장>



안 호 삼

教授隨筆 자식의 취직

김 석 주 <교무처장·도서관장>

26년전이라는 긴 세월동안 양우한 자식이 이번에 만족할만한 곳에 취업이 되었다. 온 자족들이 기뻐했다. 한편 세월이 여류했다는 의미에서 그아이의 과거 지난날도. 아니 추억기는 어버니 보다도 중조모의 손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다. 중손자를 보셔서 너무나 기뻐 하셨지에 유아의 어버니와 할머니는 양보아인 양보를 당하고 아 이의해한자정(慈情)은중조모 가 특정을 하셨다. 국민학교 시절은 부모를 따라 경지에 나오게 되어서 자연적으로 부모의 감독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리나 중학시절은 어버지의 외국 유학관계로 어머니 밑에서 주로 성장했다. 5년 만에 귀국을 했을때는 이미 변성이 되었고에드를도 났고 키도 부자잔에 다름이 없을 정도였다.

약진의 방탕의 기질이보였다. 그 후 대학에 진학을 하고 1학년 수료후 군입대를 하여 만 3년간의 복무를 제끗이 마치고 복학(復學)후 3한년이라는 대학 생활을 부모밑에서 하고 대학을 이번에 졸업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3년간의 생활을 회상해 볼 때 이른바"개개라"라는 말이 연상된다. 서학에서 때로는 거실에서 가족이 화담할 때는 아이들의 입에서는 "자유,""개성,"또는 "인권"등의 말이나온다. "어버지는 어른 중은 항상마음에 "용서" 와 희경(和情)이는자족들없다고 본다. 해나하면 이 아이의 경우 (만 경우도 대부분 그러리라 생각됨) 거의 방평성이 지나도 제상을 짐작할 정도의 철도 제법 들지 안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취업을 하고보니 금적한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8시만 지면 그 잠꾸리기가 즉자 기상을 취할 할다. 돈 쓰는 데도 달라 졌다. "아버지 돈 오로 하면 7, 000원 짜리를 하겠는데 내가 부담해야하니 5 000원 짜리로 하겠어" 하고 제법 절도를 보여준다. 직장에서도 기관장이 나타나면 즉자 일어나서 공손히 인사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다. 과연 이아이가 학교지내에 대하여 얼마나 무렵게 생각했으며, 집비 절약에 얼마나 신경을썼으며,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친지들에게 얼마나 공손한 인사를 닦았을까?

그래서 나는 직장이라는 곳을시가(認家)에비유한다.

한편 그 아이의 대학생활을 보건대 교수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생활을 한것 같다. 그밖고 해서 학교 공부에만 크게집중했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달만 내지 문학청년의 폐기도 보였다. 동료간의 교제에도 상당한 시간을 소비 했다고 본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은 그 아이가 뵈고 저 과거나 앞으로 생활을 하여 억선 세과를 체험한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온실에서 자라난 것과 다름이없다. 부모들 친지들 그리고 이 아이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은 항상마음속에 "용서" 와 희경(和情)이는자족들없다고 본다. 해나하면 이 아이의 경우 (만 경우도 대부분 그러리라 생각됨) 거의 방평성이 지나도 제상을 짐작할 정도의 철도 제법 들지 안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취업을 하고보니 금적한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8시만 지면 그 잠꾸리기가 즉자 기상을 취할 할다. 돈 쓰는 데도 달라 졌다. "아버지 돈 오로 하면 7, 000원 짜리를 하겠는데 내가 부담해야하니 5 000원 짜리로 하겠어" 하고 제법 절도를 보여준다. 직장에서도 기관장이 나타나면 즉자 일어나서 공손히 인사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다. 과연 이아이가 학교지내에 대하여 얼마나 무렵게 생각했으며, 집비 절약에 얼마나 신경을썼으며,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친지들에게 얼마나 공손한 인사를 닦았을까?

그래서 나는 직장이라는 곳을시가(認家)에비유한다.

한편 그 아이의 대학생활을 보건대 교수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생활을 한것 같다. 그밖고 해서 학교 공부에만 크게집중했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달만 내지 문학청년의 폐기도 보였다. 동료간의 교제에도 상당한 시간을 소비 했다고 본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은 그 아이가 뵈고 저 과거나 앞으로 생활을 하여 억선 세과를 체험한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온실에서 자라난 것과 다름이없다. 부모들 친지들 그리고 이 아이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은 항상마음속에 "용서" 와 희경(和情)이는자족들없다고 본다. 해나하면 이 아이의 경우 (만 경우도 대부분 그러리라 생각됨) 거의 방평성이 지나도 제상을 짐작할 정도의 철도 제

비오는 날의 빈 교정

이 탄 <시인·세소년련집장>

아직 나의 나이는 지난 날을 생각할 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았자 그것은 감정의 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도 좀 좋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쯤이라면야 그럴지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

내가 대학에 입학한 것이 1959년이 아닌가싶다. 첫 강의 시간이 퍼었는데, 내옆에 여학생이 와서 앉았다.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른다. 신경이 쓰여서 공부가 안됐다. 그 여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교수의 얼굴만 보고 있었다. 여학생과의 교제가 거의 없이 고등학교를 마친 나로서는 의당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간마다 강의실 찾아다니던일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 수선한 가운데 1년은 지나갔다. 남들은 meeting이다, Conversation group이다, 하면서 몰려다녔지만 나는 영화 구경하나 가는 일없이 중앙공보관 같은 곳의 전시회나 보고 다니다 일년을 보낸 것이다. 노우트 필기하나는 잘해서 친구들이 그때만은 날 찾아 주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외대학보기자 (그때 2학년부터 뽑았다) 가 되었다. 기자라는 말이 솟을이 났다. 뭐 좋은 이휘가 없을까 생각됐으나 그대로 넘기고 말았다. 이때 裴仁燮씨(중아일보정치부기자) 등이 주동이 되어 외대문학회를 만들려 나도 그 회원이 되었다. 2학년도 중목금 내는 걱정 무렵하지 그만 넘어갔다. 묵거랄 것 이래 타말을 많이 다녔는데 얼에는 한 계로 (Dickenson 현존회사 영부부장), 조재원 (내한일보사회부기자)등분이 그림자처럼 있었다. 아니, 내가 그들 사이에 있었던것도 같다. 하여간 외대에서는 삼총사가 되어 있었는데, 돌은 쏠집이 선전이고 나는 아직 리이이서, 내가 삼각형도 나는 얄체 같았다. 이때부터 시작해서셋은 종일할때까지 茶와 酒를 많이 먹었다. 이들 돌은 여자 문제만 생기면 나에게 보고를 하고 자문을 요청했다. 나는 덤덤이 승낙될 때가 많았다. 때문에 나는 이들 사이에 「오가 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때는 이들 셋이 나를 데리고 그때 그림 그릴게 이야기하자고 자꾸 졸라대는 것이 귀찮아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런데 그 학숙집의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의 직업이 되었다. (지난 4월 4일, 그가 비로의 어성이고, 주부가 화려한지라 나는 차라리 그림이 그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림 그리는 것은 나의 직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본명이 金炯銀이, 어떻게 주가 이 인연이 되어 우리는 「초원의 그림」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그 때문이었는지 그 주인공 나는 꼭 잊지못 하고 있었다. (지금도 귀여운 그림이 있다. 그림 그리는 것은 나의 직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